

## LD와 TOP에 관한 화용적 접근<sup>1)</sup>

고 인 수  
영어영문학과

### <요 약>

본고는 영어에서 유사한 통사구조를 갖는 LD와 TOP 구문을 중심으로 이들 유표적 통사구문들이 갖는 화용적 기능을 화자와 청자의 상호 관계 및 담화맥락의 관점에서 비교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1장에서는 LD와 TOP구문이 갖는 담화상의 분포가 다름을 보이고 있으며, 2장에서는 LD가 갖는 담화상의 기능 및 LD구문이 포함된 담화의 특성등을 살펴 보고 있다. 3장에서 TOP구문이 갖는 담화상의 기능 및 LD와의 기능상의 차이점을 살펴 본다. 4장은 LD와 TOP의 담화상의 기능상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요약과 더불어, 차후 더 보완되어야 할 점들을 살펴 본다.

---

## A Pragmatic Approach to LD and TOP

Ko, In-Soo

Dept.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paper is to define the discourse-pragmatic functions of English LD and TOP constructions. It is hypothesized that certain formally marked classes of syntactic constructions in English have certain marked classes of discourse-pragmatic functions. It is argued that English LD and TOP constructions have some differentiated pragmatic functions on the basis of interaction of interlocuto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

1) 본고에서의 LD와 TOP은 영어의 기본적 어순(canonical word-order)인 SVO구조와 구별되는 것으로, Ross(1967)의 이른바 Left-Dislocation과 Topicalization구문의 약칭으로서 사용된다. 그러나, 본고의 입장은 Ross(1967)가 주장하는 이동변형규칙(movement rule)의 적용이 결부되는 변형문법적 관점이 아니며, 오히려 LD구문은 기저생성구문(base-generated structure)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관련된 세부사항들은 본고의 성격상 통사적인 문제의 논란은 논외로 한다.

discourse entities involving these constructions.

0. 일반적으로 기본적 통사구조에 반하는 유표적 통사구문들이 담화상의 특별한 화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시사하고 있다.<sup>2)</sup> 즉 통사구조와 담화상의 기능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의 LD구문과 TOP구문이 갖는 담화상의 기능이 무엇인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종합적인 관점이라 함은 선행연구들이 갖는 시각이 각기 다름으로 해서 이들 구문이 갖고 있는 담화상의 기능을 포착·분별함에 있어 불충분하거나, 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기에 통사구조적 특성, 의미론적 특성, 청자와 화자 및 담화구조적 특성등의 관점을 포괄하는 것이다.

1. Givón(1979)에 따르면, 영어는 topic-prominence가 낮은 언어로서 topic-comment의 관계가 배타적으로 통사구조를 결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통사구조가 배타적으로 topic-comment관계의 해석을 결정하는 경우는 상당히 한정된 몇몇의 구문에서나 가능하다. 일본어와 같이 topic-prominence가 높은 언어에서는 대개의 경우는 화제(topic)가 문장 첫머리나 문장 끝머리의 문장성분이 되지만, 영어에 있어서는 문장 첫머리 위치나 문장 끝머리 위치가 화제로의 해석에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에서는 화제가 문장의 첫머리에 오는 경향이 강한 것처럼 보여진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상세의 변이에 따른 topic-comment 관계의 명시가 어려운 문어체에 있어서 더욱 현저히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장의 화제를 문장 첫머리 위치에 두어 화제화(topicalization)하는 방법으로는 문장의 주어 를 창출하는 과정으로서, 이른바 통사론에서 지칭하는 수동변형(passivization), 상승변형(raising)이 있으며, 문장의 주어 자리와 관계 없는 문장 첫머리로의 화제화 과정으로는 LD와 TOP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서 다른 문장성분에 의해 선행되지 않는 문장 첫머리의 성분은 한정성(definiteness), 지시성(referentiality) 및 제1강세(primary stress)를 받지 않는 성분이라는 화제의 조건을 갖추게 되면 그 문장의 화제로서 해석이 가능해진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1) John saw Mary yesterday.
- (2) Mary John saw yesterday.
- (3) Mary John saw her yesterday.

(1)은 기본적 통사구조를 갖는 문장으로 문장의 주어인 *John*이 화제로 해석된다. 한편 (2)와 (3)은 각각 TOP과 LD구문으로 불리워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문장 첫머리 위치인 문장의 주어 를 선행하는 성분 *Mary*가 화제로 해석된다. 위의 세 문장은 표면적으로는 각기 다른 통사구조를 갖고 있지만, Chomsky(1965)도 언급하고 있듯이 인지적으로 유사한 성격

2) Gundel(1974; 1975), Chafe(1974; 1976), Keenan & Schieffelin(1976), Ochs(1979), Durauti & Ochs(1979), Prince(1981; 1985)등.

을 띄며, 그들이 나타내는 명제적 진리치(propositional truth value)는 동일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동일한 명제적 진리치를 지니는 세 문장이 실제 담화상에서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있다. 만일 담화상에서 서로 각기 다른 맥락에서 쓰여진다면, 즉 화자가 어떤 담화상의 맥락에서 위의 세 구문중 어느 하나를 배타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한다면, 적어도 이들 세 구문은 담화상의 화용적 기능이 각기 다르다는 전제가 성립될 것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4) A : What did you do over vacation?

(5a) B : I read two books.

(5b) B : #Two books I read.<sup>3)</sup>

(5c) B : #Two books I read them.

(6) A : Why do you like horses so much?

(7a) B : Well, *this one book*, I read it when I was a kid and it made a lasting impression on me. It was about a really smart horse and I guess I've loved horses ever since.

(7b) B : # Well, *this one book I read when I was a kid* and it made me a lasting impression on me. It was about a really smart horse and I guess I've loved horses ever since.

위 (4)에 대한 답변으로 (5a)는 적절한 표현이지만, (5b)의 TOP구분이나 (5c)의 LD구문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다. 한편 (6)에 대한 답변으로 LD인 (7a)는 적절하지만 TOP인 (7b)는 부적절하다. 이로써 미루어 보면, 앞서의 가정대로 기본적 통사구문과 LD 및 TOP은 각기 다른 담화상의 맥락 속에서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들은 각기 서로 다른 담화상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예문만으로는 LD나 TOP은 허용하지만 (5a)와 같은 기본적 통사구조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와 TOP은 허용하나 LD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들 사이의 담화기능에 따른 분포가 완전 배타적인지의 여부는 의문으로 남게된다. 이점에 관해서는 뒷 부분에서 논의할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위의 (5)와 (7)에 관련된 LD와 TOP은 대략 다음 (8)과 같은 구조를 갖게된다.<sup>4)</sup>

(8) [<sub>S</sub> [<sub>NP</sub>X<sub>1</sub>] [<sub>S</sub>...(<sub>NP</sub>X<sub>2</sub>)...]]

where X<sub>1</sub> and X<sub>2</sub> are coreferential

X<sub>1</sub> is nonvocative, and, for TOP

X<sub>2</sub> is a gap/trace, while for LD

X<sub>2</sub> is a personal pronoun or possessive adjective.

한편, TOP의 경우는 X<sub>1</sub>에 제2 강세가 오고 뒤따르는 절에 제1 강세가 주어지는 억양곡선(intonation contour)을 갖는다. 본고에서의 TOP의 범주는 Prince(1981)가 구분하고 있는

3) 본고를 통하여 사용되는 '#표기는 담화맥락을 전제로 한 용인가능성(acceptability)의 관점에서 용인불가능한 것을 나타내며, '\*표기는 단순한 문법성(grammaticality)의 관점에서 비문법적임을 나타낸다.

4) Prince(1985, 68) 참조



REF

PROP

B: *The mo—the modern art the twentieth century art, there's about eight books.*

본래 left-dislocation은 문장단위 문법에서 한 문장의 형태를 다른 형태로 변형시키는 작용을 일컫지만, (15), (16)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장단위가 아닌 담화(discourse) 단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16)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REF인 *one course*가 담화자 A의 잠시 끼어드는 머뭇거림으로 PROP과 분리되어 있어—물론 이어지는 대화에서 화자 B가 REF로서 *the modern art*를 다시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그 담화적 특성을 더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sup>5)</sup> 이러한 LD의 담화적 특성은 Ross(1967)의 이른바 섬제약(Island Constraint)에 대한 LD의 자유성, 즉 LD가 섬제약에 무관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섬제약 자체가 절의존(clause-bound) 규칙이기 때문에 담화현상의 일환인 LD와는 무관하게 된다. 그러나, TOP의 경우는 (16)과 같은 예를 찾을 수 없는 것 같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LD에 관한 언급은 담화맥락(discourse context)을 고려하여야 함은 당연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LD에서 REF가 선행하는 담화내용과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 또한 REF에 이어지는 PROP은 담화맥락에서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REF는 LD구문에 뒤따르는 담화내용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등의 담화의 전후 맥락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LD에서의 REF의 화제로서의 성격은 Chafe(1976)의 'definite'나 'given'의 개념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하다. 화제의 특성은 여러가지 정보적 특성들과 연계 되는데, 그것은 한정성(definiteness), 구정보정(givenness), 주의의 핵심(centers of attention)등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결국 담화상의 선후 맥락을 통하여 표출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문장단위의 화제를 규정하는 문제는 문장의 주어의 기능을 규정하는 문제와 결부되고, 이에대한 궁극적인 설명은 필연적으로 담화맥락을 수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7) A: What happened to Tom?

(18a) B: # { *As for* } Tom, he left.  
          { *Concerning* }

(18b) B: ? Tom, he left.

(18c) B: His car, it broke down, and he's depressed.

위의 (17)에 대한 답변인 (18)의 세 문장은 각기 용인가능성(acceptability)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Keenan & Schieffelin(1976, 242)에 따르면 (18a)와 같이 직접선행하는 담

5) (16)에서 REF *one course*와 뒤이어지는 PROP사이에 의미론적 관계가 분명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문맥상 이어지는 PROP을 위한 화제(topic)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as for one course*, 또는 *concerning one course* 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as for*, *concerning*등과 같은 화제표지(topic marker)가 붙어있지 않으므로 3개의 연속된 NP를, 즉 *one course*, *the modern art*, 그리고 *the twentieth century art*의 구조적 위치로 추측할 수 있다. (Keenan & Schieffelin 1976)

화맥락에서 언급된 문장요소를 *as for X, concerning X*로 언급하는 예는 찾아 볼 수 없었고 결론을 맺고 있다. 또한 (18b)의 경우는 REF인 *Tom*을 의문의 억양으로 하여, 청자가 화자의 말을 잘 듣지 못하여 재차 언급하는 ‘*Tom*말이야?’라는 의미일때 만이 용인가능해진다. 사실상 이 경우는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화제의 범주를 벗어난 경우이다. 한편, (18c)는 가장 자연스러운 담화내용으로 REF의 명사구가 직접선행하는 맥락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경우이다. Chafe(1974)는 구정보성에 관한 언급에서, 청자의 의식속에 어떤 사실의 내용이 존재할 수도 있을 가능성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즉 화자가 발화하는 시점에서 청자의 의식속에 화자가 언급하려는 사실의 내용이 존재하리라는 가정을 하게되며, 이때 청자의 의식속에 존재하는 사실의 내용은 ‘*foregrounded*’ 되었다고 말한다.<sup>6)</sup> 이점에 관해서 Prince(1985, 66)는 화자의 발화 시점에서 청자가 표현된 지시물을 인식 할 수 있으리라고 가정하는 Clark & Haviland(1977)의 구정보성 개념을 Clark-given으로 전자의 Chafe(1974; 1976)의 구정보성의 개념을 Chafe-given으로 구분하여 이 Chafe-given을 공유된 지식(*shared knowledge*)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17)과 (18c)의 담화맥락은 이를 판단할 만큼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18c)의 LD에서 REF는 청자의 의식속에 이미 존재하는 전조된 정보(*foregrounded information*)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청자의 의식 속에 전조된 정보들은 화자에 의해서 정관사(*definite article*), 대명사, 또 관계절과 같은 통사적 구조로 나타난다. 그런데, <REF+CL>의 LD구문은 화자가 청자의 의식 속에 이미 존재하는 혹은 청자의 의식의 전경(*foreground*)에 존재하는 정보를 포출하는 담화전략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화자가 의도적으로 청자의 의식의 전경에 REF를 가져가는 담화전략의 일환이다. 따라서 이때의 REF는 Li(1976)의 의미로 ‘현재의 화제’(*current topic*)이거나, ‘현재의 주의의 핵심’(*current center of attention*)이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은 LD의 문장 첫머리 요소 REF의 기능상 화자는 청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구정보(*old information*)를 선행하는 담화맥락에서 적절히 제공할 필요가 있게 된다.<sup>7)</sup>

다음 예문(19)를 보자.

(19) K : An' I got a red sweater, an' a white one, an' a blue one, an' a yellow one, an' a couple of other sweaters, you know, And uh my sister loves borrowing my sweaters because they're pullovers, you know, an' she c'n wear a blouse under'em an' she thinks "Well this is great"

REF PROP

K : An' so my red sweater, I haven't seen it since I got it.

화자의 발화 시점에서 청자의 의식 속에 전조된 REF는 진행되는 담화 상황에서 이내 배경화(*backgrounded*)되어 버리는데, 이때 대화자 상호간의 담화 차례(*turn*)의 한 순번이 지

6) Keenan & Schieffelin(1976)은 ‘*foregrounded*’의 의미를 다음 (i)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i) If a referent is in the consciousness of the hearer, the referent is said to be foregrounded.

7) 뒤에 자세히 언급하게 될 것이지만, LD가 갖는 *unplanned discourse*의 특성에 기인한다. 즉 사전의 고려없이 새로운 화제를 제시하게 되므로, 그것이 청자에게 화자의 의도대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보충적 정보의 보완이 불가피하다.

난 후에, 또는 한 순번 내에서 발화가 끝난 후에 곧 그 REF를 재전조화(reforegrounded)시키려 할때, LD는 REF를 담화맥락에 재도입(reintroduce)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위의 예문 (19)에서 REF인 *my red sweater*는 재도입되어 청자의 의식 속에 재전조된 정보가 된다. 그러나, (19)의 전반부, 즉 *a red sweater*를 포함하는 담화맥락이 LD구문의 REF를 위한 구정보로서 제공되고 있지만, 다음의 (20)과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전의 언급이 없이 <REF+PROP>의 구조가 제시되고 있다.<sup>8)</sup> 이러한 경우는 선행된 배경지식, 즉 언어로써 포출된 것이 아니라, 담화상황에서 포착할 수 있는 비언어적 맥락을 통한 배경지식이 결부되어 청자가 그 지시물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거나 또는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다.

- |  |      |
|--|------|
| REF  | PROP |
| (20) K : Uh <i>Pat McGee</i> . <i>I don't know if you know him, he-he lives in//Palisades.</i> |      |
| J : I know him real well as a matter of fa(hh)   |      |
| (he's) one of my best friends  |      |
| K : He-he used to go to school I did//an' he-  |      |
| J : No, no(hh)   |      |
| K : He was in the dorm with me, and I was over him-and he-he had a room/An' he-                |      |
| J : No! (hh)///heh heh   |      |
| K : -he despised me.   |      |

(20)에서 화자 K의 *Pat McGee*의 언급에 대하여, 청자 J는 그의 절친한 친구들중의 하나로서 *Pat McGee*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예문 (21), (22)를 보자.

- (21) *The book I had I had got from a guy who got it from a very good call girl. We kept a copy of that book in a safe deposit box. The standard procedure was that...*(new paragraph)
- |  |      |
|--|------|
| REF  | PROP |
| <i>My first book, I paid half of each trick to the person who gave it to me. After that, it was my book.</i> |      |
- (22) This I don't call cooking, when you goin what refrigerator and get some beans and drop
- |  |      |
|--|------|
| REF  | PROP |
| them in a pot. <i>And TV dinners, they go stick them in a pot and she say cooked. This is not cooking.</i> |      |

(21)에서 화자는 그가 소유해오고 있는 *the first book*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화자의 직업과 관련되어서 획득한 책들중의 하나가 그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편 (22)에서 청자는 *beans*와 *TV dinners*가 아무 힘들어지 않고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식사 부류의 구성요소들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므로 *beans*가 REF에 적절한 구정보로

8) 화자는 갑작스러운 새로운 화제의 도입을 의식하여, 청자에게 주게되는 충격을 줄이려는 방책으로 *I don't know if you know him*이란 말을 삽입시킨다. 이러한 말을 삽입시키므로써, 화자의 청자의 의식의 전경에 *Pat McGee*란 인물을 배치하고 그것을 기정사실화 하는것으로 볼 수 있다.

서 역할을 한다. Prince(1985)는 이러한 것을 집합관계 추론(the set-relation inference)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LD의 REF가 갖는 담화기능을 NP-marking function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23)과 같다.<sup>9)</sup>

- (23) LD marks an entity as being already evoked in the discourse or else in a set-relation to something already evoked. The entity thus marked is represented by the NP.

Prince(1985)가 지정한 LD의 NP-marking function은 Keenan & Schieffelin(1976)이 LD의 REF가 갖는 담화기능으로 지정한 foregrounding function과 그 내용이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의 (24), (25)를 살펴보자.

- (24) (discussing younger siblings)

L : T' know some of 'em are darmn tall and goodlooking they could pass for (t) -nineteen.//A twelve year old guy comes over I say who's y-older brother is he?

He's not in the A7.

R : But they don't-

R : But they don't have a brain to go with it hehhh.

REF PROP

L : *These kids I don't believe it they're six foot.*

- (25) Once when we went to Big Bear and we caught a lot of fish and Suzie, Kathy and Betty  
REF PROP  
went to a park and me my mom and dad went fishing. *And this guy his fishing pole fell down in the water* and he had to go down and get it.

(24)에서의 LD는 REF를 도입하거나 또는 재도입하는 기능이 아니라, 담화자들의 의식 속에 현재 전조되어 있는 REF를 다시 언급하는 것으로서 REF에 대한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강조기능이다. 이러한 LD구문의 기능은 LD의 본연의 담화 기능이라기 보다는 이차적인 것으로 Keenan & Schieffelin(1976)이 조사한 바로는 조사된 자료의 6.6%에 불과한 것으로 그 존재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25)에서의 LD는 선행된 담화의 맥락에서 현재의 초점이 아닌 실체나 또는 초점 밖에 있는 실체들을 도입하는 문장끝머리에 오는 NP가 아닌 실체들을 독립된 정보단위로 만드는 기능이다. 달리 표현 하자면, 이때의 LD가 갖는 담화 기능은 화제변경(topic-shift)을 위한 장치인 것이다. 이러한 화제변경 기능의 예는 Keenan & Schieffelin(1976)이나 Duranti & Ochs(1979)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위하여 사전의 준비나 고려없이 자연스럽게 발화하는 이른바 unplanned discourse에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sup>10)</sup>

9) Prince(1985, 74) 참조.

10) Ochs(1979, 55)는 다음 (i), (ii)와 같이 unplanned discourse와 planned discourse를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다.

(i) Unplanned discourse is discourse that lacks forethought and organizational preparation.

(ii) Planned discourse is discourse that has been thought out and organized(designed) prior its expression.



다음의 예문들을 보자.

(26a) Kracaver's book is probably the most famous ever written on the subject of the cinema.  
Of course, many more people are familiar with *the book's* catchy title than are acquainted with its turgid text.

(26b) Kracaver's book is probably the most famous ever written on the subject of the cinema.  
REF PROP  
*As for this book many more people are familiar with its catchy title than are acquainted with its turgid text.*

(27) (In discussion about attitudes towards young siblings)

REF  
L: *My sister* when we were up in camp when she was twelve. And all the guys were sixteen,(pause) and fifteen. They don' wanna do out with twelve years old. So I let  
PROP  
*everyone know that she was thirteen and a half, almost fourteen.*

(26)의 예문은 Reinhart(1982)가 제시한 것으로 (26a)에서의 현재의 화제는 *the book*으로 기본적 어순(canonical word-order)의 구문을 형성하고 있다. 만일 (26a)의 문장을 (26b)와 같이 바꾸어 쓰면 어떠하겠는가? (26b)의 문장은 어색한(awkward) 문장이 되어 버린다. 왜냐하면, 앞서 밝혀진 바와 같이 LD는 현재의 화제를 바꾸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26a)에서의 담화상 화제는 *the book*인데 (26b)의 두번째 문장에서의 REF는 다시 선행문의 화제를 그대로 지칭하므로, 새로운 화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27)은 이른바, unplanned speech의 예로서 LD구문의 골격만 뽑아 보면 다음 (28)과 같다.

REF PROP  
(28) *My sister she was thirteen and a half, almost fourteen.*

따라서, (28)의 <REF+PROP>에서의 PROP를 주명제(main proposition)라고 한다면, (27)에서 REF 뒤에 언급되는-주명제를 제외한-부분들은 이른바 배경명제(background proposition)들인 것이다. 화자는 갑작스럽게 *my sister*를 화제인 REF로 언급을 하고, 이것이 자기가 이야기 하고자하는 화제임을 의식하여 청자에게 적절한 배경정보를 제시하므로써 청자의 이해를 도우려 하고 있다.

그런데, LD가 갖는 이러한 unplanned speech의 특성은 LD구문을 포함하고 있는 담화의 문체적인 성격과 거의 일치한다. Keenan & Schieffelin(1976), Ochs(1979) 및 Duranti & Ochs(1979)가 제시하고 있는 담화자료들은 주로 child-to-child language의 녹음자료로서 전형적인 구어체(spoken style)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따라서 거의 '격식을 갖추지 않은 문체'(informal style)의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아주 절친한 담화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발화되는 이른바 spontaneous conversation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LD구문은 '격식을 갖춘'(formal), 또는 미리 예정되고 계획된 표준영어의 담화, 즉, 예를 들어

서, 신문, 잡지 등의 기사나 학술논문 등에서는 그러한 예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sup>11)</sup> 또한 이러한 LD구문의 특성을 어린아이가 언어를 습득해 가는 언어발달적 측면에서 보면 과도기적(transitional)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Duranti & Ochs(1979)에 따르면 LD와 LD유사구문들은 주로 multi-word utterance를 통하여 의사전달을 하는 어린아들 수준의 담화에서 그 자료가 풍부하게 발견된다.<sup>12)</sup>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Keenan & Schieffelin(1976), Duranti & Ochs(1979) 및 Ochs(1979)가 말하는 것처럼 절대적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나 또는 작가의 작품 속에서도 LD구문의 예가 상당히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기사나 작품을 쓰는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LD구문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어떤 의미로는 'planned unplanned-speech'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계획된 LD구문의 사용은 단순한 언어발달과정의 과도기적 특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작가가 LD구문이 갖는 담화기능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text) 자체에 대한 담화맥락을 고려한 LD구조의 담화기능에 관한 연구는 그 자체로서 Hymes(1971)의 이른바 전달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의 실체를 파악하는 중요 작업이 될 것이다.

다음의 예들은 신문, 잡지 또는 문학작품속에 나타나 있는 LD구문들이다.

- (28) Suddenly Grandmother began to stir and I put everything except the picture back into the  
REF PROP  
trunk. That picture of Grandmother and Grandfather on their wedding day I placed it  
beside her bed.(Reader's Digest, 1980, June).
- (29) "Why do you want your letters returned?" asked the girl who had broken the engagement.  
REF PROP  
"Are you afraid that the letters I'll take them to court?"  
"No," sighed the young man.  
(AFKN Dramas)

11) 필자가 조사해 본 바로도 TOP구문은 상당히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었으나, 이에 비하면, LD구문의 예는 아주 소수에 불과했다.

12) 어린아들이 처음 어떤 의미관계를 표현할때, 제일 처음의 단계는 단순히 하나의 단어를 나열 하므로써 의사포시를 하며, 다음 단계에서는 두개의 단어 또는 그 이상의 단어들을 아무런 문법적 관계를 고려치 않고 사용하게 되며, Duranti & Ochs(1979)에 따르면 어느 단계에서는 주어의 개념을 분리하여 <REF+Predicate>형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발달 과정상 REF를 생략하고 술부(predicate)만을 언급하는 단계가 선행한다. 다음의 (i)이 그러한 예인데 이 단계가 지나면 REF를 분리시켜 언급하고 이어지는 발화에서 술부내용을 발화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볼때 LD구문은 완벽한<subject+predicate>구문을 사용하기 전 단계에서 <REF+Subject+predicate>구문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사실 이 부분에 관한 논란은 언어습득과정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i) (Two girls)

B : Uh how's school goin.

A : Oh, same old shit.

B : Hhhh/(really?)

A : 'have a lotta tough courses.

- (30) Uncle Frank had the habit of taking John's two sister's, ages eight and five, into the bedroom. John didn't understand what happened there, but Aunt Alice clearly did. Her

REF                      PROP

meekness turned to jealous rage: *the girls she cursed them, knocked them to the floor, kicked them.*

(Reader's Digest, 1980, June)

- (31) "Where shall we dig?"

Tom considered a while, and then said :

REF                      PROP

*"The haunted house we shall dig it."*

(Mark Twain's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 (32) As we ambled toward the cabin, around a small pond that now fills, the hollow, Louis

REF                      PROP

added, "*The biggest things, we had them.* They are you and your family. You were our best friends."

(Henry Hurt's *Cabin on the hill*)

다음으로 담화자들(interlocutors)사이의 상호교차적인 담화상황이란 측면에서의 LD의 기능을 살펴 보자. Duranti & Ochs(1979)는 LD가 갖는 상호교차적 담화상황에서의 기능을 floor-seeking function으로 보고 있다. 이는 대화상황에서 대화자가 발화의 차례를 갖게 되는 발판 구실을 말한다. 따라서 LD는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기능의 강도는 그리 강하지 못하다. 이는 담화자 상호간에 상대방의 발화에 끼어 들거나 또는 역으로 담화의 진행을 방해 받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런 경우 담화 상대자의 끼어들기 말고도 화자 자신에 의한 화제변경 의도의 포기과 더불어, 선행된 담화맥락의 화제로 되돌아 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가능성은 LD구문이 갖는 <REF+PROP>구조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REF에 뒤따르는 PROP은 그 자체로 독립된 하나의 명제이기 때문에 PROP자체가 가지는 문장주어의 화제로서의 기능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다. 문장의 주어는 그 자체로서 문장의 화제이며, 또한 담화맥락의 전체적인 담화상 화제(discourse topic)의 부분집합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floor-seeking기능은 그 성격상 화자와 청자가 일대일로 담화하는 상황 보다는 2인 이상의 담화자가 참여하는 담화상황을 전제한다. 따라서 LD구문은 그러한 다수의 담화자들이 참여하는 담화속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sup>13)</sup>

3. Prince(1981, 251)는 TOP에 관하여 다음의 세가지 특성을 언급하고 있다.

- (33) (i) the NP(=REF) must be referential, i.e. must represent an entity.

(ii) the NP(=REF) must represent an entity that is already evoked in the discourse or else one that is in a salient set relation to some entity already evoked or saliently

13)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Duranti & Ochs(1979)나 Keenan & Schieffelin(1976)도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조사·연구 되어져야 할 과제로 남게 된다.

inferrable in the discourse.

- (iii) the proposition(=PROP) minus the information represented by the constituent receiving tonic stress must represent old information, the tonically stressed constituent representing new information.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34) a. I didn't think you would leave.  
 b. I told Mary that I wasn't chosen.  
 c. I bought some books with me.
- (35) a. *You* I didn't think  $\phi$  would leave.  
 b. *Mary* I told  $\phi$  that I wasn't chosen.  
 c. *Some books* I bought  $\phi$  with me.
- (36) a. I didn't think *there* would be a fight.  
 b. I resented it that I wasn't chosen.  
 c. I brought few books with me.
- (37) a.\**There* I didn't think  $\phi$  would be a fight.  
 b.\**It* I resented  $\phi$  that I wasn't chosen.  
 c.\**Few books* I brought  $\phi$  with me.

(34), (36)의 기본적 어순구조에 상응하는 (35), (37)의 문법성의 차이는 통사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의미론적 차이점에 기인한다. (35)에서의 REF NP는 실체(entity)를 지시하지만 (37)의 경우에는 실체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35), (37)의 관계로 볼때 TOP은 (33i)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REF가 실체를 나타낸다고 해서 모두 TOP구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문들을 살펴보자.

- (38a) A : You want to see *Stardust Memories*?  
 B : I saw *Stardust Memories* yesterday.  
 B : *Stardust Memories* I saw  $\phi$  yesterday.
- (38b) A : You see every Woody Allen movie as soon as it comes out.  
 B : No-I saw *Stardust Memories* (only) yesterday.  
 B : No-*Stardust Memories* I saw  $\phi$  (only) yesterday.
- (39a) A : Why are you laughing?  
 B : I saw *Stardust Memories* yesterday. It was very funny.  
 B : # *Stardust Memories* I saw  $\phi$  yesterday. It was very funny.
- (39b) A : She told me that you had been away.  
 B : Yeah. Oh, by the way, I saw *Stardust Memories* yesterday.  
 B : # Yeah. Oh, by the way, *Stardust Memories* I saw  $\phi$  yesterday.

한편 (38), (39)에서 REF인 *Stardust Memories*는 내용으로 볼때 *Woody Allen* 감독이 만든 영화로서 그 실체를 갖고 있지만, (39)와는 달리 (38)에서만 TOP이 허용되고 있다. (38)에

서의 *Stardust Memories*로 지칭되는 REF들은 이른바 구정보(old information)이다.<sup>14)</sup> (38 a)에서는 선행된 대화에서 이미 언급된 이른바 'evoked entity'이며, (38b)에서는 선행된 대화에서 언급된 *every Woody Allen movie*가 그 실마리로서, 화자 B는 *Woody Allen*감독이 제작한 영화들의 목록에서 *Stardust Memories*란 영화 한편을 추론해 낼 수 있다. 이는 즉 집합관계에 의해 추론될 수 있는 실체인 것이다. 반면에 (39)에서는 REF인 *Stardust Memories*는 물론 PROP전체도 선행된 맥락 속에서 추론할 수 없는 이른바 새로운 정보(new information)이다. 따라서, 앞서의 (33ii)의 조건을 위반하여 부적절한 담화로 판별된다.

그러나, 다음의 (40), (41)을 살펴보면 지시물이 추론할 수 있는 실체라 할지라도 TOP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40) a. I went to his house and I rang the bell.  
 b. # I went to his house and *the bell* I rang  $\phi$  .
- (41) a. That newspaper infuriates me. I think I'll write to the editor.  
 b. # That newspaper infuriates me. *The editor* I think I'll write to  $\phi$  .

(40)에서 *the bell*이란 지시물은 *his house*와 연관되어 추론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집에는 보통 초인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방식으로 (41)에서도 *the editor*는 *that newspaper*와 연관되어 추론할 수 있는 실체이다. 따라서 (40b)와 (41b)의 결과로 보면 '추론될 수 있는 실체'라는 언급에 어떠한 제약이 가해져야 할 것 같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42) 'I have a recurring dream in which... I can't remember what I say. I usually wake up crying.  
 REF  
*This dream* I've had maybe three, four times.'
- (43) Q : Do all the long-haired guys bug you?  
 REF  
 A : I don't want my son to have it. Now *the sideburns* I wear because I do TV commercials and Stuff. I'm in the modeling field.

14) 여기서 구정보(old information)라 함은 주어진 맥락속에서 언어적 표현에 의해 지시되는 지시물의 특성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Prince(1981)가 제시한 (33ii)의 특성을 갖춘 지시물의 특성을 말한다. 단순한 의미의 구정보(old information)는 Reinhart(1982)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지시물이 화제(topic)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되지 못한다. 앞서 2장의 (20)의 예를 다시 살펴보자.

- REF  
 (i) *Pat McGee*, I don't know if you know him, he -- he lives in Palisades -- he used to go to the school I did...(=20)

화자는 *Pat McGee*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선행된 담화맥락이 없으므로 REF는 새로운 화제로 간주된다. 따라서 화자는 REF에 대하여 청자가 알고있지 못하리라는 판단을 하고, 이에 관련된 배경지식을 뒤따르는 담화맥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의미의 구정보가 아닌 이른바 context-set를 고려한 구정보의 개념으로 확장될 필요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Reinhart(1982)를 참조할것.



청자가 그것을 구정보로 받아 들일 만큼 필요한 정보를 담화맥락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LD와 TOP에서의 REF는 화자의 입장에서 볼때 청자와의 공유된 지식(shared knowledge)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화자는 담화맥락을 구성하려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Prince(1985)는 LD에서와 마찬가지로 TOP에서 REF가 갖는 담화기능을 NP-marking function(=23)으로 부르고 있다.

앞에서 우리는 LD의 <REF+PROP>구조에서 PROP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하나의 명제임을 밝혔다. 또한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REF가 갖는 화제변경(topic-shift)기능이 다소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즉 PROP자체에 포함된 주어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화제로서의 기능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TOP구문에서의 <REF+PROP>구조는 앞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자체로서 완전한 명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PROP가 갖는 담화상의 기능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의 (42), (43)의 예에서 TOP구문만을 분리시켜 살펴보자.

- (46) a. I've had this dream maybe three, four times.  
 b. This dream I've had  $\phi$  maybe three, four times.
- (47) a. I wear the sideburns because I do TV commercials and stuff.  
 b. The side burns I wear  $\phi$  because I do TV commercials and stuff.

(46a)와 (47a)는 TOP구문 이전의 기본적 어순 구조인데, 앞서 (33iii)이 시사하는 바와 또한 REF가 가지는 담화기능의 속성으로 볼때, (46b)와 (47b)에서 REF의 흔적- $\phi$ -뒤에 따라나오는 밑줄 친 요소들은 tonic stress를 받는 이른바 새로운 정보(new information)들이다. 이러한 속성은 앞서의 (42), (43)의 담화맥락으로도 이러한 판단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것을 Wilson & Sperber(1979)의 배열된 함의(ordered-entailment)모델을<sup>16)</sup> 사용하여 표기해 보면 다음의 (48), (49)와 같다.

- (48) a. I have this dream maybe three, four times.  
 b. I have this dream X/some number of times.  
 c. I've Xed/done something  
 d. X/something happened.
- (49) a. I wear the sideburns because I do TV commercials and stuff.  
 b. I wear the sideburns for X/some reason.  
 c. I X/do something.  
 d. X/something happens.

16) Wilson & Sperber(1979, 299-323)은 문장의 표면구조를 바탕으로 문장에서 촛점이 되는 성분-이를테면 tonic stress를 받게되는 성분-을 변항(variable)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focal scale'이라 불리워지는 문법적으로 명시된 배열된 함의의 집합을 결정한다. 변항으로 대체하는 과정은 통사적 범주가 작은 단위로부터 점점 큰 단위로 반복되어 적용되어 나간다. 이 모델에서 보면 통사적으로 또는 억양상으로 무표적인 문장들은 focal scale상의 모든 항목들이 원칙적으로 배경함의(background entailment)가 되지만, 반면에 위 사항들에 관하여 유표적인 문장에서는 focal scale상의 배경함의 선택이 제한된다.

여기에서 보면 (48b)와 (49b)는 각각 (46b)와 (47b)의 구문이 갖는 배경함의(background entailment)로서, 달리 표현하자면 (48b)와 (49b)의 내용을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경함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전조된 지식(foregrounded knowledge), 배경지식(background knowledge), 공유된 지식(shared knowledge) 또는 chafe-given의 의미와 그 맥을 같이한다. Prince(1985, 73)는 TOP이 갖는 (48b), (49b)와 같은 배경함의문을 Open proposition이라 언급하고, TOP이 갖는 이러한 특성을 다음 (50)의 Proposition-marking function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50) TOP marks an Open Proposition as Chafe-given in the discourse.

이에 반해서 LD구문 함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와같은 Proposition-marking function이 나타나지 않는다. 앞서의 (22)에서 LD구문만을 추출하여 그 함의관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51)과 같다.

- (51) a. T.V dinners, they go stick them in a pot.  
 b. They go stick TV dinners in a pot.  
 c. They go stick TV dinners in X/something.  
 d. They go stick TV dinners X/somewhere.  
 e. They X/do something.  
 f. X/something happens.

여기에서는 *TV dinners*를 제외하고는 모두 tonic stress를 받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배경함의가 될 수 있는 구문은 (51f)뿐이다. 그런데 (51f)가 나타내는 의미는 인간이 발화하는 거의 모든 문장에 포함되는 기본적인 배경함의이기 때문에 구별적 기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LD구문의 PROP은 공유된 지식(shared knowledge)으로서 보장될 수 없는 요소로 해석된다.

그러면, LD와 TOP의 <REF+PROP>구조에서 PROP이 갖는 (50)의 Proposition-marking기능의 유무는 담화상의 맥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우선 TOP의 경우는 담화맥락의 흐름상 REF들 화제로 제시하는 과정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밝혀진 바와 같이 REF와 PROP이 독자적인 기능을 하기 보다는 구조적으로도 분리시킬 수 없는 형태이며, 또한 이들이 갖고 있는 Prince(1985)의 이른바 NP-/Proposition-marking function은 청자와 화자가 이들에 대해 공유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므로 REF가 갖는 화제로서의 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LD의 경우는 <REF+PROP>의 구조에서 PROP이 구조적으로 또한 의미론적으로도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며, 앞서의 (16)과 같은 구조에서는 REF가 별개의 발화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이때의 PROP가 청자와 화자 사이에 공유된 지식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해서 담화맥락의 흐름상 자연스런 화제의 상정과정이라기 보다는 돌발적인 또는 임기 응변적인 성격을 띄며, 이런 성격 때문에 뒤이어지는 담화맥락에서 화제로서의 안정성이 다소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물론 실제적인 담화자료로서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앞서 밝혀진 바의 LD가 갖는 unplanned speech의 특성 및 화제변경(topic-shift)의 특성 등이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 한다



고 볼 수 있다.

한편 Prince(1985)가 시도하고 있는 LD와 TOP에 관한 다소의 의미론적 관점의 접근은 두 구문이 갖는 성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시적으로 밝혀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Wilson & Sperber(1979)에 의한 배열된 함의(ordered entailment)모델의 활용을 통한 Proposition-marking기능의 구별은 자칫 담화의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국부적인 현상에 집착하는 문제점을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앞서의 (31)에서 보면 LD구문에 선행하는 맥락에서 PROP의 내용이 이미 제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때 의미론적 입장에서 LD의 PROP은 Chafe-given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담화맥락으로는 청자와 화자가 공유하는 지식인 것이다.<sup>17)</sup>

한편으로 Duranti & Ochs(1979)의 연구에 따르면 이탈리아어에서는 LD구조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여지며, 특히 수동태구문과 LD구문은 그 담화기능이 유사한데, 수동태 구문 보다는 LD구문이 더 일반적으로 쓰여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반면에 영어에 있어서는 필자가 조사해본 바로는 LD구문 보다는 TOP구문이 훨씬 더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언어에 따른 특성들로 미루어 볼때에 LD와 TOP에 관한 연구는 국부적인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담화맥락 전반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4. 우리는 지금까지 Keenan & Schieffelin(1976), Ochs(1979), Duranti & Ochs(1979), Prince(1981; 1985)등의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LD와 TOP의 화용적기능이란 관점에서 접근하여 보았다.

2장에서 살펴본 LD구문은 REF가 이른바 foregrounding기능을 갖는데, 이는 Prince(1981; 1985)가 언급한 NP-marking기능과 같은 내용으로 화제인 REF가 Chafe-given information의 지위를 갖는다. 또한 화제변경(topic-shift)기능을 갖는데, 이러한 기능은 LD구문이 unplanned discourse에서 주로 사용되는데에 기인한다. 또한 담화의 상호교환이란 측면에서 볼 때는 LD는 floor-seeking기능을 갖고 있다.

한편 3장에서 알아본 TOP의 기능은 LD와 마찬가지로 REF가 NP-marking기능 또는 foregrounding기능을 갖고 있으며, LD와 TOP구문의 구조에서 PROP의 기능은 Prince(1985)가 말하는 Proposition-marking기능의 유무로 LD와 TOP이 그 성격상 차이가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Prince(1985)에 의한 Wilson & Sperber(1979)의 '배열된 함의 모델'(Ordered-Entailment Model)을 이용한 의미론적 접근은 TOP과 LD구문을 국부적인 현상으로 다루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언어습득상의 발달과정으로 보면 LD는 어린아이들의 담화에서 주로 발견되며, 격식을 갖추지 않고, 즉흥적인 구어체적 성격을 띠는 반면, TOP구문은 적어도 <주어+술어>의 구문을 완전히 구사하고 난 이후의 발달 단계로 볼 수 있다. 즉 TOP구문의 상당히 '계획된 담화'(planned discourse)에서 쓰여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LD구문의 'unplanned'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작품등에서 발견되는 이른바 의도적

17) 그렇다고 본다면 (31)에서의 LD구문은 TOP구문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고, LD와 TOP은 서로 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점에 관해서 일반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담화자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므로 더 연구되어야할 과제로 남겨둔다.

이고 계획적인 용법등은—Hymes(1971)가 주장하는 전달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를 규명한다는 측면에서—그 담화기능의 연구가 보다 중요할 것 같다.

한편 본고를 통하여 제시된 자료들은 주로 선행연구자들이 나름대로의 연구 목적상 전후 문맥을 충분히 포함시키지 않은 것들이어서 담화맥락을 충분히 파악하여 논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충분한 담화자료의 수집과 아울러 언어적보편성(linguistic universal)이란 관점에서의 언어습득 과정상의 관찰과 영어 이외의 여타의 언어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Brown, G. and G. Yule(1983)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fe, W.L.(1974) Language and consciousness. *Language* 50. 111~133.
- Chafe, W.L.(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In : C.N. Li, ed., *Subject and Topic*. New York : Academic Press. pp. 22-55.
- Chomsky, N.(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 : MIT Press.
- Clark, H. and S. Haviland(1977) 'Comprehension and the given-new contract'. In : R.O. Freedle, ed., *Discourse production and Comprehension*. Hillsdale, NJ : Erlbaum. pp. 1-40.
- Duranti, A. and E. Ochs(1979) 'Left-dislocation in Italian conversation'. In : T. Givón, ed., *Syntax and semantics* 12. New York : Academic Press. pp. 377-418.
- Givón, T.(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 Academic Press.
- Gundel, J.(1974) *The role of topic and comment in linguistic theory*. University of Texas, Ph. D. Diss.
- Gundel, J.(1975) Left dislocation and the role of topic-comment structure in linguistic theory. *Ohio State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8 : 72-131.
- Hymes, D.(1971)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 Pride and Holmes, eds., *Sociolinguistics*. Penguin.
- Jackendoff, R.S.(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ss : MIT press.
- Keenan, E.O. and B. Schieffelin(1976) Foregrounding referents : a consideration of left-dislocation in discourse. *BLS* 2. 240-257.
- Li, C.N., ed.,(1976) *Subject and topic*. New York : Academic Press.
- Ochs, E.(1979) 'Planned and unplanned discourse'. In : T.Givón, ed., *Syntax and Semantics* 12. New York : Academic Press. pp. 51~80.
- Postal, P.M.(1968) *Cross-over phenomena : a study in the grammar of coreference*. Yorktown Heights, NY : IBM, Thomas J. Waston Research Center.

- Prince, E.F.(1981) Topicalization, focus-movement, and Yiddish-movement : a pragmatic differentiation. *BLS* 7. 249-264.
- Prince, E.F.(1985) Fancy syntax and 'shared knowledge'. *Journal of Pragmatics* 9. 65-81.
- Reinhart, T.(1982) 'Pragmatics and linguistics : an analysis of sentence topics'. *IVLC* X. pp. 335-374.
- Ross, J.(1967)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MIT, ph.D. Diss.
- Wilson, D. and D. Sperber(1979) 'Ordered entailments : An alternative to presuppositional theories'. In : C.K. Oh and D.Dinnenn, eds., *Syntax and Semantics*,11. New York : Academic Press. pp. 299-323.